

대전·충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기계설비 분리발주 확대에 최선



▲ 대전·충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기계설비분리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전·충남도회 사무처 직원들(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유현철 사무처장, 유지영 사원, 정윤정 사원, 양경수 대리)

1. 회원사 현황

1) 연도별 등록업체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대전 업체수	191	184	177	184
충남 업체수	176	189	205	213

2) 행정구역별 등록업체 현황

지역	행정구역	등록수		업체수
		기계설비	가스1종	
대전	대덕구	53	6	58
	동 구	17	3	18
	서 구	39	15	49
	유성구	31	2	32
	중 구	21	6	27
	소 계	161	32	184
충남	계룡시	0	0	0
	공주시	6	1	7
	금산군	6	0	6
	논산시	10	2	12
	당진군	13	4	17
	보령시	23	2	24
	부여군	4	0	4
	서산시	18	5	21
	서천군	4	1	5
	아산시	21	4	24
	연기군	5	1	6
	예산군	4	1	5
	천안시	56	21	69
	청양군	2	0	2
	태안군	5	2	7
	홍성군	4	1	4
	소 계	181	45	213
	합 계	342	77	397

2. 대전 · 충청도회에서 하는 일

1) 설비관련 단체와 교류 및 협력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 · 충청도회를 비롯한, 한국설비기술협회 대전 · 충청지회, 대한설비공학회 대전 · 충청지

회 등 3개 단체가 “대전 · 충청지역 기계설비연합회”를 설립해 세미나 및 학술강연회를 통하여 정보교류는 물론이고, 기계설비 발전을 위하여 산업체, 학교, 연구소, 관공서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지역에서 제일 단합 잘되고 활동적인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①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팀을 편성하여 지역친화적 환경과 여건마련,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시장참여율 제고로 건설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우수업체 육성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② 충청남도는 주요발주관서 및 대형건설업체와 2007년 5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역건설업 종사자의 의식개혁과,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대형건설사에서 민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설비건설업체현황 및 전문건설업체현황을 제작하여 주요 발주관서 및 주요행정기관에 발송, 지역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3) 산학협력사업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① 대전 · 충청도회는 산학협력사업으로 설비관련 3개 단체를 연합한 기계설비연합회와 한밭대학교 산업설비과, 우송공업대학 빌딩/크린룸설비계열, 한국폴리텍IV대학 산업설비자동화과, 충남기계공고 산업설비

과와 산학협약을 맺고, 기계설비연합회는 학술강연회 및 세미나를 통해 회원사의 기술능력 향상 및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능인력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② 대전·충남도회는 위와 같이 산학협력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수기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숙달된 기술능력 및 기술습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밭대학교 산업설비과, 우송정보대학 빌딩/클린룸계열, 한국폴리텍IV대학 산업설비자동화과에 장학금으로 매년 각 400만원씩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기계공고 산업설비과에 우수기능인력양성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매년 4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4) 정부위탁 업무 수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실적신고 접수 및 시공능력 평가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300여개 회원사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인정기능사 심사 및 발급을 통해 그동안 304명의 기능인력을 배출하여 회원사에서 면허등록기준 및 현장대리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5) 회원사 지원사업 추진

회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회사경영에 필요한 건설계약,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 노무실무 등의 교육과 건설공사 실적신고강습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계설비연합회를 구성, 세미나 및 강연회를 매년 실시, 회원사 기술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6) 불우이웃 돕기

대전·충남도회는 행복한 디딤돌, 청림재활복지원, 기능장애인협회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일에 앞장서고, 2007

년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지역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방재자재 및 건설장비를 지원하고, 만리포 해수욕장 및 신두리 해수욕장 등 피해지역 방제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민과 서해바다 살리기에 적극 동참했다.

3. 대전·충남도회 회원사의 공사 수주환경

1) 건설공사 기성실적 현황

2006년 전국 기성실적은 10조12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2007년 기성실적은 약10조8,041억원으로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지역 기성실적금액은 2,706억원으로 전국평균 증가율보다 약간 상승한 비율을 보인 반면 충남지역은 1,827억원으로 실적상위업체들의 타시도회 진출 및 매출액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경우 상위업체는 매출액이 상승하고 중간업체는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대전·충남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 대전충남지역 공사수주환경

경기침체 및 타지역 진출 등으로 건설업체수가 대전·충남지역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기계설비공사업은 꾸준한 증가세로 과당경쟁 및 덤핑수주로 인하여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SOC투자 축소와 민간건설공사의 투자위축으로 건설업체의 일감은 계속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서남부권개발사업, 공공 및 기타민간투자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공사를 기대하고 있다.

3) 수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서울경기지역 일반건설업체수가 전국의 35%로 수주액이 전국의 60%정도를 차지하고, 도급순위 100위 이내 업체

가 전체 수주액의 65%를 차지한다는 자료를 토대로 협회와 시·도청, 대형건설업체, 주요발주관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수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① 지역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키는 업체는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
- ② 대전 · 충남지역 실정에 맞는 실적공사비제도의 합리적 적용을 마련
- ③ 건설업 사후관리 강화
- ④ 시 · 군에 근거 없는 수수료 폐지
- ⑤ 지역건설 유공자에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
- ⑥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활성화
- ⑦ 주공종이 전문공사인 경우 2억원 미만의 복합공사는 해당 전문공사로 발주
- ⑧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발주청에 권고

4. 대전 · 충남도회의 주요 발주기관 현황 및 분리발주를 위한 노력

1) 주요 발주기관 현황

대전에서는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연구소, 도시철도

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있으며, 충남지역은 시·군청, 교육청, 공주대학교, 계룡대근무지원단, 논산훈련소 등이 있다. 또한 대전 시·구청, 교육청의 작은 공사부터 점차 큰 공사로 늘려가고 있다.

2) 분리발주를 위한 노력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발주관서는 꾸준히 방문하여 지속적인 분리발주 시행 및 확대시행을 건의하고 있으며,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않는 발주관서에는 분리발주 건의 및 타당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방문으로 분리발주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또한 대전 · 충남도회에서는 분리발주공사 낙찰업체에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발송 및 현장점검을 통해 분리발주공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분리발주 활동성과

정부의 BTL사업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분리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꾸준히 발주처를 방문하여 분리발주 타당성을 홍보한 효과로 대전광역시 구청 및 교육청에서도 작은 금액부터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며, 분리발주 홍보 및 확대에 의해 기계설비에 대한 인식변화 및 기계설비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



땅 속에도 댐이 있나요?

땅 위에는 하천수와 같은 지표수가 흐르고 이것을 막는 댐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땅속 지하에도 지하로 흐르는 지하수를 막아 이용하는 지하댐이 있습니다.

지하댐이란 지하수가 흐르는 대수층 내에 인공 물막이벽(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대수층 내에 머물게 하고 관정 같은 시설로 취수하는 지하 저류지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하댐 6곳에서 1일 약 15만㎥의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댐 21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댐은 지표수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댐은 일반 저수지에 비해 증발 손실과 수물 면적이 없고 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비가 다소 많이 들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이용하기에는 곤란하기도 합니다.